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의 논평이 중요한 이유>

보통 모의고사가 끝나면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런 평가는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쁘니까 틀리기도 좋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설령 문제가 좋다고 해도 문제를 틀린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를 입시 자원으로 제출할 것도 아닌데 틀리면 어떨습니까?

어떤 문제를 틀렸다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쁘다'고 평가받는 문제를 틀린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요? 실력이 충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틀린 경우라면 물론 반성할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누군가가 이 문항은 문제가 요구하는 기본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주어진 조건에서 충분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에서 '문제가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평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가 나쁘다'고 할 때,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과연 이런 의미의 나쁜 문제가 있을까요?

반대로 심지어 수능 문제라고 해도 '나쁜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논평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령 이른바 '질러 문항'의 경우에는 '교육적인 시각'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입시 제도를 논의하는 발표나 공청회 등을 할 때 특히 나쁜 경우 문제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평가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질러 문제'는 문제가 나쁘니까 틀리기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든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의고사뿐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얻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이 '문제의 풀이'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에서 '같은 문제'가 출제될 것이 아니라면 문제의 풀이는 그 자체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봅시다.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에서 '유형'별로 대비할 수 있는 문항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강,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아마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판단되는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 결국 중요한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 1) 물론 이 때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하고 언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2) 사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말도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용하니까 특별한 부연 설명 없이 '새로운 유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비유가 적당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친구 관계를 생각해봅시다. 만약 반드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본 경험만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을 만나본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경험'도 해보고 '나쁜 경험'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힘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의 이치도 이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문항에 대한 '해설'이 아닌 '논평'을 준비한 이유는 교육청 모의고사의 해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해설'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제공되는 '해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강의'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므로 문제를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한 '논평'이 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미 3월 교육청 대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 성격의 문항에 대한 매우 자세한 논평은 제공 드린 바가 있으며,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경우 문제만 다를 뿐 문제를 통해서 생각해야 할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문항에 대한 논평은 생략해도 될 것으로 보며 몇 문항만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문항에 대한 의문이나 또 비슷한 논평을 원하시는 경우는 언제든지 보충해서 제공해드릴 것도 약속드립니다.